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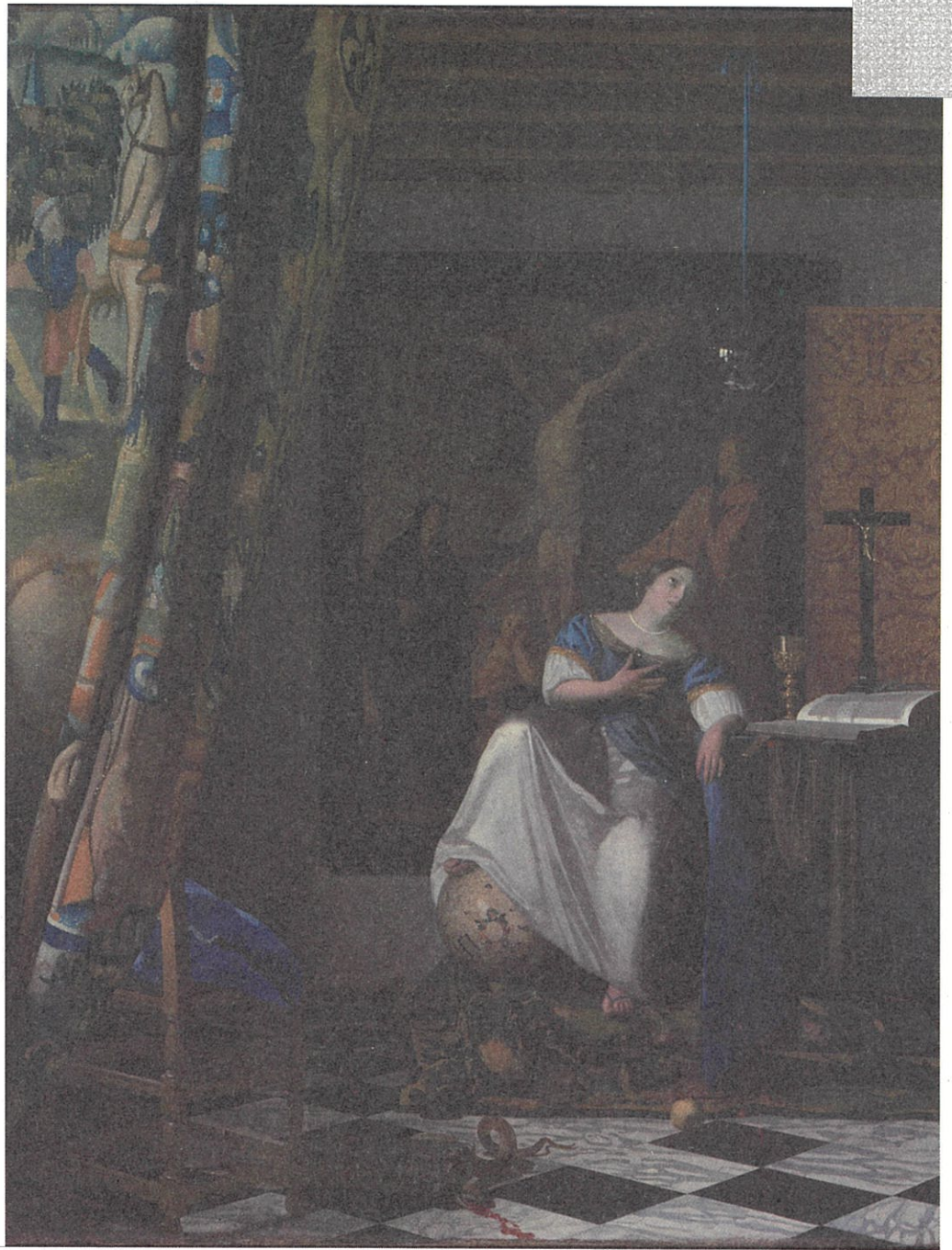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587호
2025년 11월 30일(가해)

대림 제1주일

가톨릭 신앙의 우의(寓意)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Johannes Vermeer, 1632-1675)
1670-72, 캔버스에 유채
114.3x88.9cm



입당송 | 시편 25(24),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 이사 2,1-5

화답송 | 시편 122(121),1-2.4-5.6-7.8-9(◎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

제2독서 | 로마 13,11-14 ㄱ

복음환호송 | 시편 85(84),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 마태 24,37-44

영성체송 |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안승태 요셉 신부 | 창5동성당 주임

깨어 있음 -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

대림 제1주일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마태 24,42,44) 예수님의 영광스런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깨어 있음’이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며,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 있음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초대합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로마 13,12)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이사 2,5)고 했는데, 바오로는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주 예수님으로 갈아입고, 육신과 욕망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로마 13,14)

옷을 입음으로써 인간은 연약한 몸을 보호하고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정하고 아름다운 옷매무새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품위를 한층 드높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옷’이 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

씀의 옷으로 우리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입혀주시고, 성체성사의 옷으로 우리를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굳건하도록 입혀주십니다.

성 베르나르도 아파스는 대림 시기의 강론에서 주님의 세 가지 오심에 대하여 언급하시며 성탄과 재림 사이 중간의 오심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중간의 오심은 첫 번째 오심에서 마지막 오심으로 인도해 주는 길입니다. 첫 번째 오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이 되셨고 마지막 오심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이며 이 중간의 오심에서는 우리의 안식과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성탄과 재림과 일상의 오심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자 준비인 ‘깨어 있음’은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희망하는 이는 깨어 있게 되고, 주님을 희망하는 이는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희망하는 이는 다른 옷이 아닌 예수님 입기를 원하고 하느님 말씀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 안에 머무르며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희망하며 깨어 예수님을 입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 영원한 생명(구원)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성화 해설

화가는 네덜란드 황금기에 공적으로 가톨릭 미사가 금지된 시대 상황 속에서 상징과 우의를 담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의인화된 ‘믿음’은 푸른 옷을 입고 오른손을 심장에 얹은 채 파란 리본에 매달린 유리구(진리)를 감탄스럽게 바라봅니다. 책상 위에는 신앙의 핵심인 십자고상과 성작(성체성사), 성경이 놓여 있으며, 건넌 태피스트리는 가정 교회에서 은밀히 미사를 드리던 당시 상황과 늘 깨어 준비했던 신앙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대낮의 품위를 지키며 깨어 기다립시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인평 아우구스티노 시인

아직 세례를 받기 전 병실에서 《한국천주교회사》 두 권을 읽은 건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박해 시대에 벌여졌던 순교자들의 신심이 그대로 제게 느껴지는 동안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먼저 하느님을 찾아나섰던 까닭에 유례없는 ‘자생적 천주교회’라는 말뜻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세례받기 5년 전 객지에서 친구약을 통독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주일마다 성당을 다니다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사를 읽은 후엔 “나도 자생적 천주교인이구나!” 하고 독백의 감회를 느꼈습니다.

입원 중엔 세례를 받았고 퇴원 후엔 절두산 성지를 찾았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던 곳인데 ‘자생적 천주교인’이 되고 보니 순교의 정신이 온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님, 순교자들의 빛을 쓰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듯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2008년 ‘바오로 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에 제 시 두 편이 성지에 설치되었습니다. <영혼의 강>이 강변 절벽 아래에, <피의 절벽>이 한국순교성인 시성기념 교육관 로비에 봉헌된 순간마다 마치 순교자들이 저를 안아준 듯 가슴이 떨렸습니다.

한강아, 너는 물이 아니라 피로 흐른다/ 물빛 푸른 고요가 아니라/ 순교의 터, 거룩한 혈관을 흐른다// 핏물 삼키고 가는 어둠이 아니라/ 물결 가득 영혼의 빛살로 흐른다// 한강아, 너는 피의 역사를 굽이쳐/ 우리들 가슴에 쏟

아 붓고 가는/ 놀란 침묵이 아니라 성혈로 흐른다 <영혼의 강>

저는 한강 자체를 거대한 성지로 보고 이 시를 썼습니다. 상류에서 강화 갑곶돈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요 성지들이 한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흘러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되살아 흘러드는 순교자들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고요히 일깨워주었습니다. 순교자들이 바라본 마지막 형극의 순간에도 영원불멸의 생명수처럼 흘러들어 하느님의 영광을 더욱 드높였을 것입니다. 저 또한 병인박해 150주년을 기념하여 절두산 순교자를 위해 이상철 신부님이 오라토리오 음악 주제와 가사로 만든 ‘피의 절벽’ 피날레처럼 주님을 찬미하는 강물이 내내 흘러들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컷 묵상

자신이 죽을 날을 안다면,
사람들은 분명 남은 시간 동안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노력하게 하시려고,
그날과 그 시간을 알려 주지 않으십니다.
- 성 요한 크리스토포



김현진 클라라 작가

천국에서 별처럼



백근재 도미니코 사비오 |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중등부 교육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는 ‘교사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매주 교사 회합 시간이나 캠프, 피정 같은 큰 행사를 마치고 선생님들끼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이고, 교구 교육이나 연수의 파견 미사에서 도 늘 마침 성가로 이 기도를 노래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기도를 선생님들과 함께 바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도문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여, 마지막으로 제가 받을 최대의 보상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소서.”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매주 일 빠지지 않고 성당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교회와 하느님을 위해 내어놓은 교사들인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보상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회의 다른 청년들은 그 시간동안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고 은연 중에 생각하여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시작해 보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 제 안에 든든하게 쌓여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치열하게 동료 선생님들과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회의했던 일, 교사회 회계를 맡아 주일학교 예산을

관리했던 경험, 캠프 홍보를 위해 고민했던 다양한 시도들, 여러 캠프장을 직접 답사하고 비교하며 더 좋은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 많은 친구들 앞에서 교리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시간들, 신부님이나 사목회에 주일학교의 주요 논의 사항을 보고드렸던 일들까지. 교사 생활을 통해 경험한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두 사회생활 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왜 ‘교사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은총을 위해 기도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단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며 학교나 사회에서의 동아리 활동이나 스펙을 쌓기 위한 체험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생활이 온전히 나의 시간과 마음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또 하느님을 위해 내어놓는 봉사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미 채워주시기 때문에, 굳이 이 세상의 보상들에 대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당의 많은 선생님들, 또 지금은 교사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을 위해 교회에 몸담았던 많은 분들이 교사의 기도 마지막 구절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땅 위에서 당신을 빛낸 공로로 내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 저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아멘.”

신음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우리



방중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한 겨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성당에 복사를 서러 가던 길이 생각납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장갑 낀 손을 귀에 대고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요즘 겨울은 그러한 추위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여름은 더욱 뜨거워지고 길어지고 있으며,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겨울은 따뜻해져 갑니다.

겨울이 예전보다 따뜻해져 좋다고 하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반짝이는 여름의 태양을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조차 여름이 길어진 것이 펍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후 변화는 개인의 취향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러 계절을 지나치는 동안 이와 관련된 지구촌의 피해는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 7일, 제주도 최고 온도가 23.6도를 기록했던 것은 인도양 쌍극 현상(Indian Ocean Dipole)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에는 끔찍한 산불이 발생했고, 무려 한국 면적의 두 배 이상의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숲의 약 14%가 전소되었고, 수억 마리에 이르는 동물들이 죽거나 피해를 보았습니다. 같은 시기 동아프리카 지역은 평균 대비 두 배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홍수와 산사태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의 집은 기후 변화라는 동일한 문제 앞에서 서로 연결되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다스림에 대한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구는 것은 밭을 경작하거나 밭일을 하는 것, 돌보는 것은 보살피고 보호하며 감독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위임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를 인간에게 맡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지성을 지닌 인간은 세상의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글을 보면서, ‘이미 기후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나 혼자 노력한다고 변화될 문제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대부분의 카페는 종이 빨대를 사용하거나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많은 음식점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탄소 중립을 위해 협약을 맺고 공동의 목표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후 위기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공동의 집이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에 무관심한 개개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하여, 젊은이와 함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로운 '희망의 순례자들' 회년을 마치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구약의 하느님 백성이 회년을 통해 빛으로부터의 해방, 노예 신분에서의 해방 등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성지 순례와 성체조배 등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새로운 출발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깁시다. 또한 다가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온 세대가 세계의 젊은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가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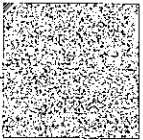
1.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하여

'시노드 교회'를 주제로 다룬 지난 3년(2021년 10월 ~2024년 10월)에 걸친 시노드 여정은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 '최종문서'가 선포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노드 교회를 향한 여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교황청의 시노드 사무국은 '시노드

이행 단계를 위한 길잡이' 자료를 통해 2028년 10월 까지를 '시노드 이행 단계'로 설정하면서, 각 지역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노드 교회를 향한 여정을 구체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노드 교회란 '하느님과 이웃과 이루는 친교의 교회,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교회, 복음의 기쁨을 살고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종문서'에서는 특별히 '회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들의 회심', '과정들의 회심', '유대들의 회심'을 언급하면서, 시노드 교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에 있어 '묵은 모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하달하는 옛 방식'에서 '회심'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경청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식별해 나가는', 그러면서도 '직권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순명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대화'는 서로를 존중하며 경청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시노드 교회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모습 중에는 ‘시노드 문화’를 교회 안에 심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최종문서’에서는 시노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투명성’, ‘책임있는 설명’, ‘평가’,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투명성’ 분야에서는 교회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괄목할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책임있는 설명’(accountability) 부분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구는 교구의 여러 현안과 사목 주안점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친절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목 현장에 계신 신부님들께서도 교우들에게 ‘친절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별적인 여러 사목적 결정 과정 속에서도 교우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노드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책임있는 설명’을 친절히 나누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모두의 교회’

“교회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47항) 우리 교구가 나아가야 할 시노드 교회의 모습으로 저는 ‘경청하는 교회’, ‘환대하는 교회’,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를 그려봅니다.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예컨대 어떠한 장애를 가진 분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 나감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를 더욱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선교하는 사도’가 되도록 동반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분야의 소외된 분들, 소수자들도 하느님 사랑을 체험함에 배제되지 않도록 따

뜻이 맞이하고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하느님 앞에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 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공동번역 이사 55,1) 시노드 교회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교회이며, 하느님의 품인 교회는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3. ‘젊은이와 함께하는 교회’

2026년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서울로 모이는 특별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해입니다. 젊은이는 교회의 미래일 뿐 아니라 현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메가 이벤트를 넘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젊은이들 안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며,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구 차원에서는 이미 ‘조직위원회’가 꾸려져 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큰 틀에서 본당 차원에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 본당 차원에서도 그리고 각 개인으로도 세계에서 오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함께 나눌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를 아울러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홈스테이 제공을 통해서나 자원봉사자 활동

을 통해서나 환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본당에서는 젊은이들만의 준비 토론회가 아니라 어른 세대들도 함께 참여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본당 환대 프로그램'을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하여, 젊은이와 함께”라는 주제를 살아갈 구체적인 몇 가지 권고 사항을 담아 봅니다.

1 교구 차원

- 교구 차원에서는 먼저 ‘시노드 이행을 위한 교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이 ‘교구팀’은 교황청의 시노드 사무국이나 주교회의의 시노드 담당 부서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할 ‘행정팀’과 각 본당에서의 시노드 이행을 돕기 위한 교구의 ‘사목팀’의 두 부서로 구성될 것입니다.

2 본당 차원

- 시노드 이행을 위해 본당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성령 안에서 대화’를 통해 본당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 각 본당에서 그룹을 지어 시노드 ‘최종문서’를 함께 읽고 나누는 그룹 공부를 시도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 ‘젊은이와 함께’하는 본당을 위해서 ‘청년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함께하는 봉사 활동’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본당 차원에서 모든 세대가 특히 어르신 세대가 ‘성령 안에서 대화’를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 것입니다.

3 신자 개인 차원

-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최종문서’를 직접 읽어 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함께 모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지향으로 묵주기도 한 단(이상)을 바치면 좋겠습니다.
- 사회생활 가운데 신앙을 증거하는 작은 실천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성호를 긋고 식사 전 기도 바치고 식사하기, 직장에서 천주교 신자임을 밝히고 동료 신자들과 짧은 기도나 성경 읽기 함께 하기, 생명과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 교회의 입장을 옹호하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하여, 젊은이와 함께”라는 주제로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며, 젊은이를 교회로 적극적으로 초대하되 어른 세대가 소외를 느끼지 않는 교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모두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밝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十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정순택 베드로

오늘(11월 30일)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은 '가해'를 따르게 됩니다

12월 7일(주일)은 대림 제2주일로 제44회 '인권 주일'이며 제15회 '사회 교리 주간(12월 7일~13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알림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위령성월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기도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국군 장병 및 수감자를 위한 성탄 위문금

우리 교구 소속 군종 신부님들께서 전후방에서 불철주야 수고 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자 각 본당에서 성탄 위문금을 모금합니다. 또한, 좌절과 실의 속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수감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위문금도 모금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1년 12월 7일 이운기 스테파노 신부(44세)

교구청 알림

순교자현양 신심 미사

때, 곳: 12월 2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 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12월 4일(목) 오후 2시~3시,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양경모 신부(멕시코 선교 후 귀국)

2025년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사랑과 생명의 문화 축제

주제: 사랑의 문화! 생명의 문화!
때: 12월 6일(토) 10시30분~18시
곳: 수원교구 마리아뿔리센터 강당 3층
문의: 02)460-7623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참조: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카카데미

교육명: 성경순례 저자와 함께하는 읊기(허영엽 신부),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문의: 02)727-2126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가능): 02)727-2139 / (월~금) 10시~17시
문의(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7시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키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건설업체 정규등록 신청 안내

정규등록 분야: 건축, 리모델링
등록신청 기간: 11월 24일~12월 12일까지
자격 및 서류제출, 심사, 등록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https://aos.catholic.or.kr>) 홈페이지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또는 가톨릭인터넷 굿뉴스(<http://www.catholic.or.kr>) 홈페이지 하단 '교구'란의 '교구정규등록 건설업체' 참조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일반인	12월 1일(월) 13시30분~16시30분
직장인	12월 7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주교좌 명동대성당 2025년 대림특강

때, 곳: 12월 1일~15일 매주(월) 오후 7시~8시, 명동대성당 대성전(3주간) / 문의: 02)774-1784

12월 1일(월)	서울대교구 2026 사목교서	정순택 대주교 (서울대교구장)
12월 8일(월)	성경 속 인물들의 영적 친교와 소통	김영선 수녀 (광주 가톨릭대 교수)
12월 15일(월)	"당신이 옳다" 경청과 공감의 힘	정혜신 박사 (경신건강과학회 전문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때, 곳: 12월 1일(월)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명동)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1491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 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평양교구 안주 본당
문의: 02)727-2420

2027 서울 WYD 청년 리더십 연수

때, 곳: 12월 20일(토) 14시~19시30분,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eoul.org) 참여하기 참조
문의: 02)2230-2023 / 2027 서울 WYD 조직위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염미숙 개인전: 1전시실
김순경 신부 10주기 추모전·서소연 회백 유작전: 2전시실
여서현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 28일(금)~12월 7일(주일)

2025 미사를 통한 치유 12월 월피정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자료 드림)
내용: 가톨릭 전례 교육과 미사를 통한 치유 특강
때, 곳: 12월 5일(금)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 강의: 조창수 신부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2026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순례 피정	9월 3일~17일(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산티아고 화요산피정	매주(화) / 안국역 - 외룡공원 - 북악팔각정 - 창의문 - 경복궁역(10km)

인준단체 알림

모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12월 6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2026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살레시오회)

대상: 건강한 중1~35세 미만 미혼 남성
 때, 곳: 1월 23일~25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1월 10일까지 접수 / 문의: 010-6221-3520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꽃동네 기도회)

대상: 중학생 이상부터 미혼 남녀 / 회비: 10만원
 때, 곳: 2026년 1월 2일(금) 14시~4일(주일) 16시,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문의: 010-5490-5345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 / 문의: 02)3276-7794

때, 곳: 12월 26일(금)~2026년 1월 4일(주일)·1월 8일
 (목)~17일(토)·1월 23일(금)~2월 1일(주일), 예수마음
 배움터 / 주화: 예수회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

성령 안에서 치유회복 피정

때: 12월 13일(토)~14일(주일) 1박2일
 곳: 아론의 집(의왕시) / 피정지도: 김성대 신부
 회비: 12만원 / 문의(접수): 010-6366-4022
 주화: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수원교구 찬양사도협)

성모술술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 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일 둘째주(금~주일) 2박3일 12월 12일~14
 일·2026년 1월 9일~11일·2월 20일~22일
 경북 청도 기차역에서 무료 픽업 신청 가능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및 1,000송이 묵주기도·미사

1)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2월 2일 김효임 수녀 12월 9일 배갑진 신부

2) 1,000송이 묵주기도·미사

때: 매일 첫째주(월) 12월 1일 12시~16시30분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1강당 / 미사: 김중국 신부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국내 12월 18일~21일(대전 23년) /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홍콩·마카오·심천 2026년 1월 26일~29일 / 대한항공

수도회 성탄 전례·연말 청년 피정

파스한 사랑을 받아들이 마음의 자리를 준비해요
 대상: 행복을 찾는 만33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0-9816-0072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도회 성탄전례 피정 12월 24일(수) 18시~25일(목)
 송년감사행복 피정 12월 31일(수) 18시~2026년 1월 1일(목)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째(금) 12월 5일 10시~15시30분
 요한묵시록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12월 10일(수)~13일(토)
 송년 피정 12월 31일(수)~2026년 1월 1일(목) / 선착순 접수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성령미사·강의·안수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양창우 신부

녹번동 성령기도회 무료 치유 피정

내용: 말씀, 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010-2452-3359
 때, 곳: 12월 3일(수) 18시30분~20시30분, 녹번동
 성당 2층 소성전 / 강사: 한상우 신부(구속주회)

순교성지 새남터 대림 일일 피정

강사: 이영준 신부(복자수도회), 김재덕 신부(대전교구)
 때, 곳: 12월 6일(토) 10시~15시(순례 미사), 새남
 터성당 2층 대성전 / 문의: 070-8672-0327
 12월 4일(목)까지 사전 접수 / 회비: 1만원(중식 제공)

토마스 머튼 영성배우기 피정(입문반)

내용: 박재찬 신부의 머튼영성 강의(총12회)
 때, 곳: 2026년 매일 셋째주(토) 10시~16시, 성 베
 네딕도회 서울 피정의 집(중구 장충동) / 문의: 카
 카오톡(ID: ThomasMerton 친구 추가), 010-4829-
 6257 (문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두루미 생명 평화 여행(철원·연천·파주)

대상: 누구나(선착순 40명) / 문의(접수): 031)941-
 2766(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때, 곳: 12월 2026년 1월 10일(토)·1박2일 1월 24
 일(토)~1월 25일(주일), 민족화해센터
 회비: 일일 5만원, 1박2일 10만원(성인)·7만원(청소년)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송구 영신 철야기도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미사·안수(중식 무료)
 문의: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1)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

때: 12월 1일(월) 10시~16시

2) 삼성산 송구영신 철야기도회

때: 12월 31일(수) 오후 6시~2026년 1월 1일 오전 4시

교육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

(교육청 학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영어 ABC반, 기초영어반 / 문의: 02)727-2472

2025년 행복한 겨울 캠프

대상: 현재 중학교 1, 2학년 / 문의: 043)260-5076
 때, 곳: 2026년 1월 2일~4일(2박3일), 양업고등학
 교(주최) / 회비: 15만원(접수 확인 후 이체)
 12월 22일(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전기 2차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원서접수: 2026년 1월 5일~23일 17시까지
 모집과정: 제1과정(예비과정)-철학·신학-62학점
 (수강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교회
 법-88학점(수업료 50% 장학금 혜택)
 문의: 02)2164-6521(gsl.catholic.ac.kr)

2026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 문의: 02)747-8501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2026년 1월 16일(금)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1시~15시40분(2년, 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자력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9시~21시40분 (화·목·금)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 정)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모집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대상: 봉사에 관심 있는 현재 초·중·고
 내용: 연탄나눔, 생태체험, 자원공헌, 환경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를 통한 청소년 리더십과 영성교육
 문의: 010-6880-9605(www.stvin.or.kr)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12월 5일(금)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929-2977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 미사

내용: 연례와 가정을 위한 기도회와 미사 / 02)3142-4434
 때, 곳: 12월 5일(금) 11시10분, 절두산순교성지

곤벤두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 미사

때: 12월 6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군중후원회 월례 미사·특강

특강: 박현찬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12월 1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원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곡개성지 내)

첫토요일 신심 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12월 6일(토) 9시~12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12월 3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
 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시스피나 시니어 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곳: 12월 5일(금) 19시30분, 영산아트홀
 다함게성가를TV 이호중 교수 지휘 / 010-9842-8818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이민·유품정리,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
 제품을 기증 받음 / 재활용, 환경 살림, 이웃 도움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명동대성당 성음악봉사회와 연합연주회

명동성당 성음악봉사회와 소속 합창단 연합 연주회
 때: 12월 8일(월) 20시 / 문의: 02)774-1784
 곳: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 전석 초대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수녀회)

2025년 성탄 평화마켓(가톨릭 플라마켓)

청년 작가들이 정성껏 만든 핸드메이드 성물과 다양
 한 가톨릭 소품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에 여러분
 을 초대합니다 마켓 수익금의 일부는 청소년들을 위
 한 기부금으로 사용됩니다 / 문의: 02)338-7832

때, 곳: 12월 6일(토) 12시~18시, 청년문화공간
 JU(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1층 카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건대입구역)	010-9695-1366 효주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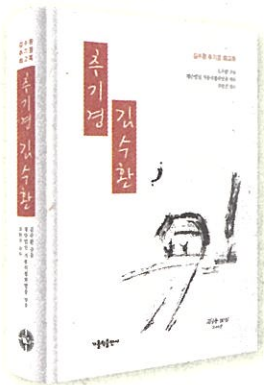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2025년 11월 추천 도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로마 13,11-1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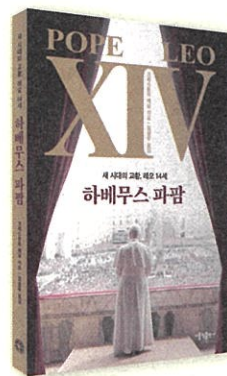
신간 도서



추기경 김수환

김수환 추기경 구술 | 2만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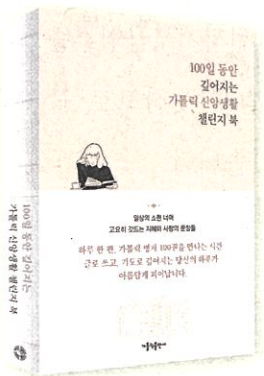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남긴 신
시대의 증언과 신앙의 유산



하베무스 파팜

크리스토프 에닝 지음 | 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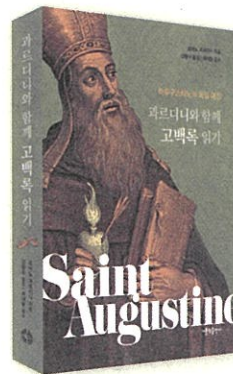
2027년 WYD에서 만나게 될
레오 14세 교황님의 이야기



100일 동안 깊어지는
가톨릭 신앙생활 챌린지 북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2만4천원

가톨릭 명저 100권에서 선별한
지혜와 사랑의 문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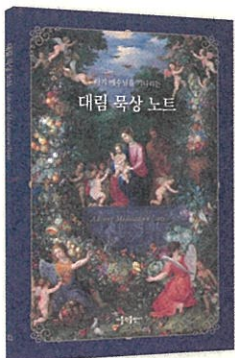


과르디니와 함께
고백록 읽기

로마노 과르디니 지음 | 2만9천원

은총이 이끄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회심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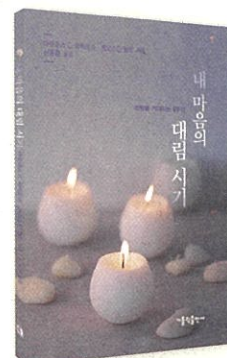
대림 시기 추천 도서



대림 묵상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6천원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는 노트



내 마음의 대림 시기

마르쿠스 C. 라이트슈 외 지음 | 8천원

나를 돌아보는
4주간의 여정으로 대림 시기의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의 모든 도서와 성물, 디지털 콘텐츠를
'가톨릭북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www.CatholicBookPlus.kr ▼

구입문의
02) 6365-1888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마포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김 현 (안토니오)

주임신부 : 최장민 (도미니코)

부주임신부 : 백종원 (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 (스테파노)

안락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5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오후 6시 (청년)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미사	• 월요일 : 06시 • 화요일~수요일 : 06시, 10시, 19시 • 목요일~금요일 : 06시, 10시 • 토요일 : 10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성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최원영 스테파노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 일시 : 12월 2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국수잔치가 있습니다.

● 최원영 스테파노 보좌신부님 휴가

- 기간 : 12월 1일(월) ~ 12월 8일(월)
- ※ 은총의 시간 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사시간 조정

- 12월(대림 제1주간)부터 미사시간이 조정됩니다.
- 화요일 : 오전 6시미사 신설
- 수요일 : 오후 7시미사 신설
- 토요일 : 오전 6시미사를 오전 10시미사로 변경

● 성탄 집중 판공성사

- 일시 : 12월 17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성전 및 임시고해실
- ※ 성사표는 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대림시기 동안의 모든 고해성사는 성탄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연례회 미사

- 일시 : 12월 2일(화) 오전 10시
- ※ 매월 첫째째 화요일 10시에 연례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시간

- 일시 : 12월 4일(목) 오전 10시미사 후

● 성모신심미사

- 일시 : 12월 6일(토)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12월 16일(화) 오전 10시
-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 미사 후 201호에서 화합이 있습니다.

● 연성회(70대) 모임

- 일시 : 12월 11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문의 : 요셉 총무 (010-3891-4300)

● 남성울드레아

- 일시 : 12월 21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드레아

- 일시 : 12월 23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성물방 봉사자 모집

- 봉사시간 :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 한푸름 청년성가대 정기연주회

- 일시 : 12월 6일(토), 오후 7시 30분
- 장소 : 대성전
- ※ 오후 3시미사(초등부)는 소성전에서 봉헌합니다.

● 2026년도 달력 배부

- 배부 장소 : 교육관 1층 로비
- 배부 수량/방법 : 세대별 1부씩 / 자율 수령

● 2026년 각 단체 예산신청서 제출

- 기간 : 11월 30일(주일) 오늘까지
- 신청서 :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양식명(엑셀파일) : 2026년 단체예산신청서 양식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사무실에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jjmalee@seoul.catholic.kr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 제출

- 2025년부터 납입하신 교무금 등은 종이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기부금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에따라 2022년 12월 이전에 간소화 동의를 하신 분들은 금년내에 사무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제출하실 경우 발급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오늘은 국군장병과 수감자를 위한 성탄 위문금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11. 2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15	776 (38.5%)	732 (36.3%)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감사헌금 (11월 17일 ~ 11월 23일)

강경탁	오십만원	곽선모	오천원
함영동	일만원	김재관	삼십만원
최영숙	일백만원	이미숙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교무금	11,522,000원
주일헌금	6,445,000원

입당	95	봉헌	218,211,213	성체	162,170,180	파견	91
----	----	----	-------------	----	-------------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